

## 조형과 표현기법 11주차 과제

# 사례 조사



유머러스한 무한도전 캘린더

가장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그 달의 컨셉으로 잡음

2010년도 달력은 돌림판을 돌려  
작가, 컨셉, 모델 등을 무작위로 정함

이를 바탕으로 하고싶은 컨셉을  
모두 입력한 뒤 랜덤으로 추첨하여  
달마다의 컨셉을 다르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음

# 사례 조사



국립 생태원의 달력

달력의 컨셉은 '동물의 출생'으로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을 그려 넣음

뒷면은 아이들이 색칠공부를  
할 수 있도록 컬러링북처럼 제작



## 사례 조사



가회 민화 박물관의 달력

민화 박물관 답게 달력에  
다양한 민화를 사용함

그림과 달력이 한 페이지에  
함께 있는 디자인(큰 사이즈)




앞쪽은 달력, 뒤쪽은 그림으로  
되어있는 디자인(작은 사이즈,  
큰 사이즈 둘 다 있음)

## 달력 컨셉 정하기

- ‘순우리말 달력’ 를 큰 주제로 정함
- 12월에 맞게 ‘십이간지’ 동물도 활용
- 각 띠별 동물과 관련된 전래동화를 활용함
- 앞쪽은 달력, 뒷쪽은 동물과 관련된 전래동화나 설화를 설명
- 순우리말과 잘 어울리는 서체를 사용하고, 세련되고 차별한 한복의 색조합을 이용하기

# 해오름 달

새해 아침에 힘있게 오르는 달 

2022.01

1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밝날
					1 신정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31	25	26	27	28	29	30



# 해오름 달의 십이지 쥐

## - 피돌이 쥐

옛날 옛날에 하늘의 대왕 옥황상제가 쥐, 소, 호랑이, 토끼, 고양이,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를 불러서 말했어요. “정월 초하루날 제일 먼저 천상의 문에 도착한 12마리에게는 하늘의 지위 ‘십이지’를 주겠다. 모두들 그 전까지 열심히 훈련하거라.” 그 후, 옥황상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물들은 기뻐하며 천상의 문에 빨리 도착하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소와 고양이가 가장 열심히 훈련을 했어요. 모두들 소와 고양이는 꼭 ‘십이지’가 될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쥐는 자신의 힘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십이지’에 들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십이지’가 꼭 되고 싶었던 쥐는 소와 고양이에겐 잔피를 부리기로 마음먹었어요. 쥐는 곧장 고양이에게로 가서 말했어요. “고양이님, 고양이님. 천상의 문이 열리는 때가 바뀌었어요. 초하루날이 아니라 그 다음날이에요!” “그래? 알려줘서 고마워, 쥐야!” 고양이는 쥐의 말을 믿고 더욱 열심히 연습했어요.

얼마후, 마침내 정월 초하루날이 되었어요. 모든 동물들은 훈련한대로 천상의 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때! 쥐가 몰래몰래 소의 등에 올라탔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연습했던 소가 역시나 1등으로 달려갔어요. 소가 천상의 문 앞에 다 와갔을 때, 쥐가 소의 등에서 뛰어내려 1등으로 문에 들어갔어요. 소는 분했지만 어쩔 수 없이 2등이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동물들은 천상의 문을 통과했어요. 쥐의 말을 듣고 열심히 연습하던 고양이는 모두가 신나하는 소리를 듣고 뒤늦게 천상의 문 앞으로 달려왔어요. 하지만 고양이는 12등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십이지’가 될 수 없었어요. “쥐 이 고약한 녀석! 가만두지 않을테야!” 고양이는 화를 내며 쥐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십이지’에 속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쥐를 쫓아다닙니다.

1월 뒷면



# 시샘 달

꽃샘 추위가 있는 겨울의 끝 달



2022.02

2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밝날
	1 설날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 -소가 된 게으름뱅이

옛날 어느 마을에 게으름뱅이와 그의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부인이 게으름뱅이에게 명주 두 필과 댕냥을 주며 소를 구해오라고 했어요. 게으름뱅이는 알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사실 게으름뱅이는 이 돈을 가지고 편하게 놀다 들어올 생각이었어요. 신나게 길을 가다보니 어떤 노인이 소 얼굴 모양의 탈을 만들고 있었어요. 게으름뱅이는 탈이 신기해 보여서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탈을 다시 벗으려 해도 벗겨지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탈이 벗겨지질 않아요” 그러나 게으름뱅이의 입에서는 소의 울음소리만 났어요. 게으름뱅이가 소가 되어버린 것이예요! 노인은 소가 된 게으름뱅이에게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일을 하는중 마는중 하며 말을 듣지 않자, 노인은 게으름뱅이가 잠깐 쉬는 사이에 다른 남자에게 게으름뱅이 소를 팔아버렸어요. “이 소에게 절대로 무를 먹이지 마시오. 일을 더 안 하게 될 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게으름뱅이 소는 남자에게 팔려가 다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 남자는 노인과 다르게 일을 설령설령하는 게으름뱅이 소를 마구 때렸어요. “이 놈의 소가 일은 안 하고 그늘에서 뉘는거야! 오늘 저녁은 없을 줄 알아!” 그제서야 게으름뱅이 소는 울며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밤새도록 게으름뱅이 소에게 일만 시켰고, 밥도 주지 않았어요. 게으름뱅이 소는 일을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쓰러졌어요. 그 때! 게으름뱅이 소 앞에 맛있어 보이는 무 하나가 보였어요. 게으름뱅이는 바로 무를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요. 그 순간! 평 하는 소리와 함께 탈이 벗겨졌고, 게으름뱅이는 다시 사람이 되었어요. “와!! 다시 사람이 되었다!” 그 순간 어디선가 노인이 나타나서는 게으름뱅이에게 소 한 마리를 주며 말했어요. “다시는 게으름 피우지 말거라. 이 소를 데려가 열심히 일을 해라. 내가 꼭 지켜볼 것이야.” 그 노인은 바로 하늘의 신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할게요.” 곧장 집으로 간 게으름뱅이는 부인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 물오름 달

산과 들에 물이 오르는 달



2022.03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밝날
		1 삼일절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 물오름 달의 십이지 호랑이

## - 호랑이의 보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나무꾼과 그의 부인이 살고 있었어요. 부부에게는 외동아들이 있었는데 젖을 잘 먹지 않아 걱정이었어요. 하루는 부부와 아들이 함께 냇가로 산책을 갔어요. 하지만 냇가에서도 아이는 젖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첨병!’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가 난 곳으로 가보니 호랑이 새끼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일이야” 나무꾼은 호랑이들을 모두 구했어요. 호랑이들은 털이 젖어서 덜덜 떨며 울어댔어요. 부인은 마침 젖도 차 있고, 아이가 먹지를 않으니 호랑이들에게 대신 젖을 먹였어요. 배가 불러진 호랑이들은 금방 기운을 차렸고, 어디론가 쭉르르 달려갔어요. 호랑이들이 달려간 쪽을 보니 집채만한 큰 호랑이가 부부를 보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어흥!” “호..호랑이다! 도망쳐!” 호랑이가 소리치자 부부는 깜짝 놀라 아이와 함께 집으로 도망갔어요. 냇가에는 부부의 짐들과 아이의 벗겨진 신발이 놓여 있었어요.

집으로 도망친 부부는 그제서야 짐을 놓고 온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쿵!” 하고 문 앞에 무언가가 떨어졌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아이의 신발과 놓고 온 짐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뒤로는 큰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들이 숲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호랑이가 우리 짐들을 다시 가져다 주었네.” 호랑이가 자신의 새끼들을 구해준 부부가 고마워서 가져다 준 것이었어요. 그 이후로도 호랑이는 부부의 집에 수시로 돼지, 닭, 떡 등 온갖 먹을 것을 물어다 주었어요. “참 고마운 호랑이야.” 게다가 부부의 아들이 다시 젖을 먹기 시작했어요. 새끼 호랑이들이 젖을 먹던 모습을 보고 따라하게 된 것이죠. “호랑이가 이렇게 은혜를 갚는구나.” 새끼 호랑이들을 구해준 부부와 아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3월 뒷면



# 임새 달

물 오른 나무들이 잎을 돋우는 달



2022.04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밤날
				1	2	3
4	5 식목일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4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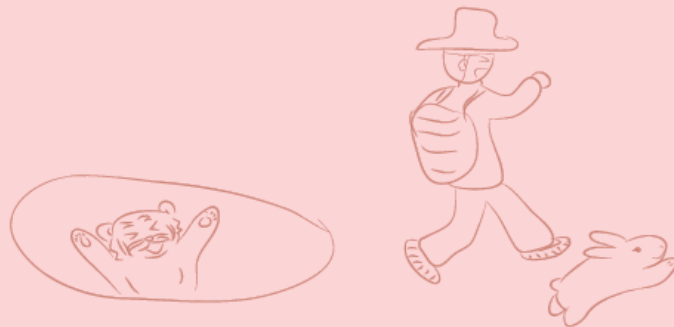
잎새 달의 십이지

# 토끼

## - 토끼의 재판

어느 선비가 숲속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소리가 들렸어요. 선비는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커다란 구렁이에 호랑이가 빠져 있었어요. “선비님 선비님, 도와주세요” 선비는 호랑이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걱정이 되었어요. “호랑이 너 내가 구해주면 나를 공격할거잖아.” “아니예요 도와주신 은인을 어떻게 공격하겠어요?” 선비는 호랑이를 믿고 구해주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구렁이에서 올라오자마자 선비를 공격하려 했어요. “구렁이에 빠져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 마침 잘 되었군.” 호랑이가 공격하려는 순간, 선비가 말했어요. “너 이놈 호랑이!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 나쁜 놈은 인간이지. 인간이 구렁이를 만들어서 빠진거야.” “그럼 누가 나쁜 놈인지 물어보고 잡아먹어라!” 그렇게 선비와 호랑이는 나무에게 향했어요. “나무야 호랑이가 나쁘니, 인간이 나쁘니?” “우리가 열매를 주는데도 인간은 우리를 마구 꺾어. 인간이 나빠!” 나무는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것 봐. 인간이 나쁘잖아. 자 이제 먹는다!” 선비가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아니야! 또 다시 물어보면 다를거야.” 선비는 마침 지나가는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호랑이가 나쁘니, 인간이 나쁘니?” 토끼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님이 어떻게 빠져있었다고요? 헛갈려서 직접 봐야겠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구렁이 안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이렇게 빠져 있었다. 자 이제 누가 나쁜 놈인지 말해봐!” 그러자 토끼는 선비에게 말했어요. “선비님, 지금이에요. 도망쳐요!” “아이구, 고마워라” 그렇게 토끼의 지혜 덕분에 선비는 도망칠 수 있었어요. 아직도 호랑이는 구렁이에서 “도와주세요!”를 외치며 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월 뒷면





# 푸른 달

마음이 푸른 모든 이의 달



2022.05

5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삿날	낫날	닷날	옛날	밤날
						1 근로자의 날
2	3	4	5 어린이날	6	7	8 부처님 오신 날 어버이날
9	10	11	12	13	14	15 스승의 날
16	17	18	19	20	21	22
23 / 30	24 / 31	25	26	27	28	29



# 푸른 달의 십이지 미르(용)

## -용소설화

옛날에 활을 잘 쏘는 김활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김활량의 꿈에 황룡이 나타나 다음날 청룡과 싸울 때, 청룡을 활로 쏘면 꼭 은혜를 갚겠다고 말했어요. 다음날이 되어 김활량은 황룡과 청룡이 싸우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청룡이 잠깐 지쳐보였을 때, 김활량은 청룡의 목에 활을 쏘았어요. 김활량의 방해로 인해 청룡은 황룡에게 지게 되었어요. 황룡은 김활량에게 고마워하며 자신이 싸우던 벌판에 물을 대주어 농사짓기 좋은 밭을 만들어 주었어요. 밭이 너무 좋아 농작물이 잘 자라게 되었고, 김활량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어요.

한편, 청룡은 황룡에게 지고 나서 언덕 바위에 숨어 살게 되었어요. 자신을 방해한 김활량에게 복수를 꿈꾸며 칼을 갈았어요. 청룡의 눈에는 인간이 모두 김활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언덕 바위를 지나가는 인간을 볼 때 마다 마법을 부려 이끼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 이끼를 밟고 미끄러져 다치게 되었어요. 청룡은 사람들의 미끄러지는 모습을 지켜보기 위해 언덕 바위 옆 연못으로 거처를 옮겼어요. 이렇게 청룡의 복수 때문에 사람들은 언덕 바위를 지나갈 때는 조심조심 걸어가게 되었어요. 아직도 언덕 바위는 이끼로 뒤덮혀 있고, 그 옆의 큰 연못은 청룡이 숨어있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을 청룡이 살았던 곳이라 '용소'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5월 뒷면



# 누리 달

온누리에 생명이 가득 차는 달



2022.06

6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밤날
		1 2022 지방선거	2	3	4	5
6 현충일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구렁덩덩 신선비

옛날 어느 할머니는 자식이 없어 삼신에게 빌었어요. “제발 자식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딱 한명이라도 점지해주세요.” 이 기도를 들은 삼신은 할머니에게 뱀 아들을 낳게 해주었어요. 이 뱀 아들의 이름은 ‘신선비’였어요. 세월이 흘러 신선비가 장가 갈 나이가 되자 할머니는 이웃집의 세 딸을 소개 시켜 주었어요. 하지만 첫째와 둘째 딸은 뱀을 무서워해 신선비를 피하기만 했어요. 오직 셋째 딸만이 신선비를 좋아했답니다. 신선비는 그렇게 셋째 딸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첫날 밤에 신선비는 허물을 벗고 잘생긴 남자가 되었어요. 그 뒤로 신선비는 허물이 다 벗겨질 때까지 낮에는 뱀으로, 밤에는 사람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이윽고 신선비의 허물이 다 벗겨지자 부인에게 자신의 허물을 주며 절대로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고는 과거시험을 보러가게 되었어요. 그 사이에 부인의 실수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에게 허물을 들리게 되었어요. 언니들은 기겁을 하며 신선비의 허물을 불에 태웠어요. 과거시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신선비는 허물타는 냄새를 맡고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떠났어요. 신선비를 찾아나선 부인은 길을 물어 물어 돌아다니다가 지하세계로 가게 되었어요. 지하세계에서 물어 물어 신선비의 거처를 알게 되었어요. 신선비는 지하세계의 공주와 살고 있었어요. 신선비는 공주의 마법에 걸려 부인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자 부인은 신선비가 자신을 알아보게끔 노래를 불렀어요. 부인의 노래로 공주의 마법의 힘이 약해지자 신선비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공주는 부인에게 호랑이 눈썹을 가져오면 신선비의 마법을 풀어주겠다며 내기를 했어요. 부인은 그렇게 호랑이 눈썹을 가지러 갔어요. 하지만 무서운 호랑이에게 잘못 걸리면 부인도 위험하기 때문에 발을 동동 굴렀어요. 그러자 삼신이 나타나 “이것을 가져가거라” 하며 호랑이 눈썹털을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신님.” “네가 신선비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덕분이란다.” 부인은 바로 공주에게 호랑이 눈썹털을 건네 주었어요. “어..어떻게 이럴 수가! 내가 졌다.” 그렇게 부인은 공주와의 내기에서 이겨 신선비의 마법을 풀 수 있었어요. “부인! 이게 어떻게 된 일ियो?” 그렇게 부인은 신선비를 다시 되찾고 집으로 올 수 있었어요. “사실은 언니들에게 들에게 허물을 들켰어요.” “괜찮아요. 공주의 마법이 풀리면서 허물도 함께 없어졌으니깐요.” 그렇게 신선비와 부인은 다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답니다.

6월 뒷면



# 견우직녀 달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아름다운 달



2022.07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밤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제헌절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7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 -용마와 아기장수

아차산의 최고봉에는 힘이 세고 뛰어나게 훌륭한 말이 하나 살았답니다. 그 말의 이름은 ‘용마’였어요. 용마는 하늘을 날아다니며 마을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수호신이었어요. 임진왜란 때도 북바위산에서 북소리가 울려 퍼지자 용마가 포효하여 마을 사람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어요. 평화로운 어느날, 한 평민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세히 보니 겨드랑이에 날개가 있는 아주 힘이 센 아기장수였어요. 아기장수는 하늘을 날 수 있었고, 아주 큰 바위로 맨 손으로 부술 수 있었어요. 아기장수는 하루하루 힘이 더 세졌어요. 사람들은 아기장수를 의심하며 미래의 역적이 되어 나라를 망친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 소문을 들은 아기장수의 부모는 아기장수가 역적이 되어 집안을 망칠까봐 두려워 졌어요. 부모는 아기장수가 잠잘 때까지 기다렸어요. 잠시 후, 아기장수가 잠이 들자 부모는 무거운 돌을 가져와 아기장수를 눌러 죽였어요.

아기장수가 죽자 마을에는 온갖 맹수들과 역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용마를 찾으며 도와달라고 소리쳤어요. “용마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을을 살려주세요!” 그러자 용마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용마는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이 마을의 수호신이 된 것은 모두 아기장수 때문이었다. 하지만 너희는 그 아기장수를 죽였지. 나는 이제 너희를 도울 이유가 없다.” 용마는 크게 울부짖으며 하늘로 날아 올라갔어요. 용마도 아기장수도 사라지자 마을 사람들은 도움을 받을 곳 없이 점점 죽어갔어요. “아기장수야 우리가 미안하다.” 마을 사람들과 아기장수의 부모는 잘못을 크게 뉘우치며 아기장수에게 싹싹 빌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아기장수가 나타나 사람들에게 “나를 모함하고 죽인 것을 용서할게요. 하지만 영원히 저와 용마에게 잘못했다고 빌며 살아야 할 거예요.” 라고 말하며 마을의 역병을 없애 주었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용마가 살던 산의 이름을 ‘용마산’이라 부르며 매일매일 아기장수와 용마에게 사과하며 살게 되었답니다.

7월 뒷면



# 타오름 달

하늘에선 해가 땅위에선 가슴이 타는 정열의 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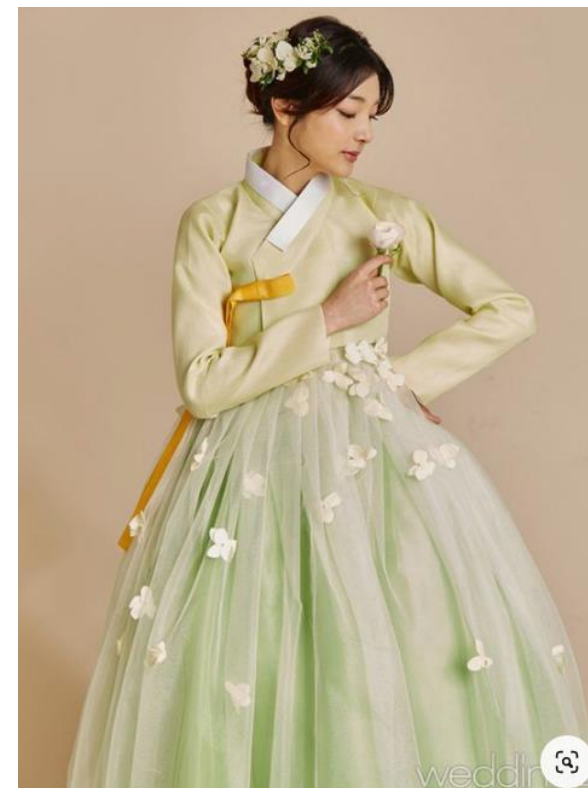


2022.08

한날	두날	삿날	낫날	닷날	옛날	밤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8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 -늑대와 어린 양

어린 양이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때!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나 어린 양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어디 새파랗게 어린 놈이 어르신 먹는 물을 흐리고 있느냐?” 그러자 어린 양은 눈을 깜빡거리며 대답했어요. “어르신보다 더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물을 흐릴 수가 있나요?” 어린 양은 늑대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었어요.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잠시 굴뚝히 생각하더니 다시 어린 양에게 호통을 쳤어요. “지금 보니 작년에 날 욕하고 도망간 녀석이 바로 너로구나, 못된 녀석!” 어린 양은 다시 늑대에게 말했어요. “저는 작년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요?” 또 다시 할 말이 없어진 늑대는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날 욕한 놈은 네 형이겠구나. 네놈의 형이 날 욕한 댕가로 널 잡아먹을테다! 날 원망하진 말거라!” 어린 양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저는 형제가 없어요!” 늑대는 다시 생각에 잠겼어요. “흠..아무튼 너도 같은 양이잖니, 같은 양이 내게 욕을 했으니 대신 벌을 받아라!” 결국, 늑대는 말 같지도 않은 황당한 소리로 어린 양을 잡아 먹었어요.

다음날, 어린 양이 안 보이자 가족들이 찾아 나섰어요. “양아, 어디있니? 대답 좀 해보렴!” 어린 양을 찾는 가족들의 소리가 들리자 늑대는 쏜살같이 달려와 풀숲에 숨었어요. “그 놈의 가족들이구나, 못된 녀석 분명히 내게 거짓말을 쳤을거야.” 늑대는 어린 양에게 형이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어린 양은 형제가 없었어요. “..아니야 나는 틀리지 않았어.” 늑대는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늑대는 어린 양을 찾는 부모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딜 가도 어린 양을 찾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늑대는 죄책감에 시달리며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8월 뒷면

# 열매 달

가지마다 열매가 맺히는 달



2022.09

9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밤날
			1	2	3	4
5	6	7	8	9	10 추석	11
12 대체 휴일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열매 달의 십이지 **잔나비(원숭이)**

## -잔나비 연못

조선시대, 한 포수가 새 사냥을 하러 산에 올라갔어요. 길을 걷다 보니 나무에서 떨어진 아기 원숭이가 있었어요. 아기 원숭이는 배가 고파 슬피 울었어요. 포수는 그런 원숭이를 두고 올 수 없었어요. 결국 포수는 아기 원숭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포수와 그의 부인은 원숭이를 지극 정성으로 보살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날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어요. 부부는 기뻐하며 원숭이와 아이를 함께 키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아이와 원숭이가 밥을 먹다가 뜨거운 물을 쏟게 되었어요. 그 사고로 아이는 화상을 입게 되었어요. 부부는 어쩔 줄 몰라하며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원숭이가 아이를 안고 숲으로 달려갔어요. 놀란 부부는 원숭이를 뒤쫓아 갔어요. 숲을 헤메다가 가까스로 아이와 원숭이를 발견했는데, 원숭이가 연못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부부가 다가가보니 아이의 상처가 말끔히 나아 있었어요. 원숭이가 데려온 연못은 알고보니 희귀한 약수가 담긴 연못이었어요. 부부는 안심하며 다시 원숭이와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이 이야기가 마을까지 퍼지게 되자, 사람들은 원숭이를 칭찬했어요. 그 이후로 원숭이는 길조의 상징이 되었고, 원숭이가 데려간 연못은 '잔나비못'이라 부르며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훌륭한 연못으로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9월 뒷면





# 하늘연 달

밤달 외에 아침의 나라가 열린 달



2022.10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밤날
					1	2
3 개천절	4	5	6	7	8	9 한글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31	25	26	27	28	29	30

10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하늘엔 달의 십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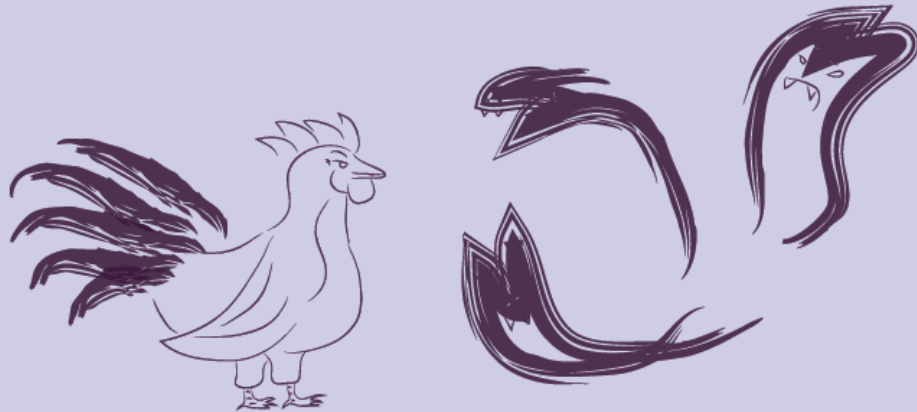
# 닭

## -천지개벽 이야기

이제 하늘과 땅이 갈라지니,  
하늘로 이제는 위로  
천황닭이 목을 들어 울고,  
지황닭은 날개를 들어 울고,  
인황닭은 이제 꼬꼬 꼬끼오 콕콕.  
먼동 금동 대명천지로 밝아가니  
동으로 잇몸을 드러내고, 서로는 먹이 들고  
동서남북으로 다 좌우팔방 날개를 드니  
이젠 동성 개문 열렸으니 참 밝아지네.  
이젠 해가 돌이 막 떠오르고,  
달이 돌이 떠올랐지.

옥황상제가 지팡이를 땅으로 광!하고 내리꽂으니 땅과 하늘로 갈라졌어요  
천황닭은 목을, 지황닭은 날개를, 인황닭은 목소리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사람들에게 알렸어요. 닭이 울어서 어둠이 걷히고 밝은 빛이 들어왔어요.  
닭은 스스로 어두운 새벽으로 들어가 세상을 어지럽히는 마귀를 물리쳤어요.  
마귀들이 없어지자 해님과 달님이 고개를 들었고, 아침에도 밤에도 세상은  
밝은 빛으로 가득 찼어요. 지금도 닭은 우리를 위해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10월 뒷면



# 미틈 달

가을에서 겨울로 치닫는 달



2022.11

11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밤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미틈달의 십이지 개

## -오수의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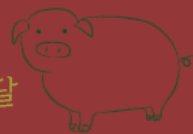
옛날에 김개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개 한마리를 기르고 있었어요. 김개인은 개를 너무 사랑해서 항상 데리고 다녔어요. 개 또한 김개인을 사랑했고 충성을 다했답니다. 어느날 김개인은 개를 데리고 오수장에 나갔어요. 그곳에서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고, 술을 좋아하는 김개인과 그의 친구들은 몹시 취하여 잔디밭에 쓰러져 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필 근처에 불이 나서 번지고 있었어요. 불은 점점 커졌고, 결국 김개인의 근처까지 번지게 되었어요. 이 모습을 본 개는 김개인을 깨우려고 애썼으나 김개인은 일어나질 않았어요. 개는 곧바로 가까운 냇물로 달려가 온 몸에 물을 묻히고는 김개인의 주변 잔디를 적셔 불이 다가오지 못하게 애를 썼어요. 이렇게 개는 수십번을 반복하며 불을 막아냈답니다. 잔디가 점점 젖어 싸늘함을 느낀 김개인은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러나 힘이 빠지고 불에 화상을 입은 개는 김개인의 옆에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김개인은 몸을 바쳐 자신을 구해준 개를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그는 개의 무덤을 만들어 장례를 치른 뒤, 개가 죽은 자리를 잊지 않기 위해 항상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를 꽂아 두었어요. 얼마 후, 꽂아둔 지팡이에서 싹이 나더니 쭉쭉 자라 느티나무가 되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은 그 나무를 강아지 나무라는 뜻의 '오수'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 오수가 쭉 전해져 내려오면서 지금의 '오수면'이 되었답니다.



11월 뒷면

# 매듭 달

한 해의 끄트머리 달



2022. 12

12월 앞면

↓ 한복의 색조합을 활용

한날	두날	셋날	넷날	닷날	엿날	밝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크리스마스
26	27	28	29	30	31	





# 매듭달의 십이지 돼지

## -돼지가 된 대감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영감이 살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영감에게 밭을 빌렸기에 항상 꾸벅꾸벅 인사를 했어요. 하루는 영감이 마을을 산책하는데 한 노인이 길을 막아섰어요. “네 이놈, 왜 길을 비키지 않는 것이냐!” “쫓쫓..노인 공경을 하지 않는구먼” 노인은 영감에게 망태를 던져 씹웠어요. 그랬더니 펑! 부자 영감이 돼지로 변했어요. “욕심많은 사람이 쓰면 돼지가 되는데..자네는 욕심이 많은 모양이구먼” 노인은 구시렁대며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이고, 내가 돼지가 되다니! 나는 이 마을 부자라고!” 하지만 영감은 꿀꿀 소리밖에 낼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돼지로 변한 영감을 보고 인사는 커녕 비웃기만 했어요. “욕심만 부리더니 잘 되었다!” “이제야 눈치보지 않고 살겠네” 영감은 화를 내며 마구 돌아다녔어요. 그러다 배가 고파져서 근처 밭에 있는 참외 하나를 먹었어요. 그러자 영감이 다시 사람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어요. 영감은 다시 돼지가 되었고 꿀꿀거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해야 사람으로 돌아가나.”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노인이 다시 나타났어요. “자네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을 도와주면 다시 사람을 돌아올걸세.” 영감은 깜짝 놀랐어요. “당신은 옥황상제요? 내가 잘못했소. 다시는 욕심 부리지 않을겁니다.” 영감은 곧장 자신의 집으로 가 욕심부리며 모았던 사람들의 물건을 다시 돌려주기 시작했어요. 물건을 돌려주면 돌려줄수록 영감은 사람으로 변했어요. 마지막 물건을 돌려주자 영감은 다시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사람이 되었다! 아까운 내 물건..다시 빼앗으면 안되는 것인가?” 영감은 다시 욕심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노인이 나타나서는 “예끼! 너는 사람이 된 지 몇시간이나 되었다고 다시 욕심을 부려?” 노인은 영감을 다시 돼지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노인은 영감을 다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욕심많은 부자 영감은 영원히 돼지로 살게 되었습니다.

12월 뒷면

